

# [제주잠녀]99.<2부>발로 딛는 잠녀들의 삶 (70)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아직 돌아갈 바다가 있었네

등록 : 2007년 12월 30일 (일) 15:47:23  
최종수정 : 2007년 12월 30일 (일) 15:47:23

고미 기자 ✉ [popmee@jemin.com](mailto:popmee@jemin.com)

바다와 더불어 사는 방법에 특별한 것은 없다. 그저 욕심을 버리면 된다.  
그냥 서있기도 힘든 거센 바닷바람에 맞서면서 연신 탄성이 나오는 절경이 펼쳐진다. 하지만 이곳 신엄 바다는 '몇 년에 한번씩 사람 목숨을 잡아먹는다'.  
바다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냇을 잃고 바라보는 바다는 그러나 지금 너무도 고즈넉하다.  
계절 탓은 아니다.  
애꿎은 기정(절벽을 이르는 제주말)에 앙탈을 부리는 바다는 그래서 더 푸른색을 띠고 있었다.



## △'물질 그만 둔지 4년...아쉬움은 없다'

도내에 3명인 여성 어촌계장 중 한 명인 정순화 애월읍 신엄리 어촌계장(70)을 만난 것은 바다가 아니었다.

정 어촌계장은 "물질을 그만 둔지 4년이 됐다"고 했다. 시집간 둘째 딸이 출산을 하며 도움을 요청한 것도 있었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신엄 바다에서 버티기 힘들어졌다.

신엄 바다는 물이 깊고 물이 무겁기로 유명하다고 했다. 2년이 넘는 취재 동안 '물이 무겁다'는 말은 처음이다.

정 어촌계장은 "작업을 하러 물에 들어가는 것도 힘이 들고 작업을 마치고 바다 위로 나오는 것도 여간 힘들지 않다"며 "신엄 바다에서 물질을 해본 잠녀들은 다른 바다에서는 쉽게 일을 한다"고 말했다.

그래도 전부를 이해하기에는 뭔가가 부족하다.

정 어촌계장은 존반지와 녹고물 사이 '중여'매기를 꺼냈다.

"신엄바다는 거의 기정 바다여서 여도 없고 바위 밑은 거의 모래밭"이라며 "중여는 그중에서도 물이 깊어 잠수도 고르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한번 작업을 위해 10m 이상씩 잠수를 해야하는, 그런 바다에 아직도 잠녀들이 있다.

나이가 많고 감귤 작업 등으로 버는 수입이 바다보다 후해 바다를 찾는 일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잠녀들에게 바다는 '고향'이다.

많으면 지금도 9명 정도는 물에 든다. 하지만 요즘은 5~6명 정도 함께 작업을 하면 다행일 정도가 됐다.

대부분 기정 바다인 탓에 작업을 하는 장소도 서쪽 남포리와 동쪽 녹고물로 한정돼 있다. 물때에 맞춰 하루에도 양쪽을 오가며 작업을 한다.

그렇게 부지런을 떨어도 소라 수확량은 1000kg을 겨우 채울까 말까 할 정도다.



▲신엄당

### △2008년을 기다리다

퓏도 거의 나지 않는 등 빈약해 보이는 바다지만 물에서 이어진 내가 없어 신엄 바다는 별다른 오염 없이 깨끗한 상태다.

여기에 올해 오문자기 종패 4만 마리를 뿌렸다. 정 어촌계장은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오문자기는 종패나 키워 파는 가격에 큰 차이가 없어 비용 부담 등으로 기대감에 비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정 어촌계장은 "할머니 어촌계장이 불쌍해 보인 모양"이라고 말을 아꼈지만 아직 청정함이 남아있는 바다라는 점에서 시범 사업 대상으로 충분해 보인다.

종패를 뿌린 이듬해 작업이 가능한 오문자기와 2005년 작업한 전복 종패를 거둘 수 있게 되는 2008년 바다에 거는 기대는 그래서 크다.

내년 바다 성적표에 따라 앞으로 바다를 어떻게 관리하고 가꿀 것인지 정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해안도로가 멋드러지게 정비되면서 오가는 사람은 많지만 해녀의 집 등의 수익은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 24명인 잠녀들이 지키기에 바다는 너무 험하고 많이 열려있다.

바닷이나 문어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잦고 갯바위 낚시 등을 즐기는 강태공을 찾는 일도 어렵지 않다.

어린이집에서 손자가 돌아오기 전까지 잠깐의 잠이 있다며 함께 바다를 나선 정 어촌계장의 표정엔 해석하기 힘든 감회가 서린다.

남포리를 지나 부록머리, 불미여, 석좌당, 볼레낭, 연대밀, 안무기, 존반지, 녹고물하며 하나하나 짚어가는 목소리에 이전 바다에 대한 추억이 깊게 깔린다.

잠녀들에게 바다는 언제고 돌아갈 고향이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그냥 바다의 억센 찬바람을 맞으며 말없이 서 있었다.

'발로 딛는 잠녀들의 삶' 다음 이야기는 제주시 매월을 구업리이며, 관련 내용은 해녀박물관 홈페이지([www.haenyeo.go.kr](http://www.haenyeo.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